2023
2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곽상아/22서양 박래기/석22공예 박진아/20디자인 이혜지/21조소 조수민/20서양

모교 재학생 장학금 수여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2월 22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1학기 (재)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본회가 모교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한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곽상아(22서양/학사2), 박래기(석사22공예/석사3), 박진아(20디자인/학사3), 이혜지(21조소/석사3), 조수민(20서양/학사4) 등 5명이다. 이날 장학금을 수상한 곽상아 학생은 "후배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대동창회에서는 장학금제도뿐 아니라 학기 중 야식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미대 재학생들을 지원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며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지 학생은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며 학업에 더욱 열중하고 후배들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조수민 학생은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학업에 임하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학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본회는 서울대 총동창회(관악회)에 미술대학 특지장학금을 기탁해 매년 2회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모교 학장과 간담회

본회 권영걸 회장은 지난 2월 22일 모교를 방문, 신임 정의철 학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모교 학장실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권회장은 정학장과 모교 및 동창회의 현안을 논의했다. 권회장은 동창회의 이산가족찾기 일환으로 3500명의 연락망 구축과 아카이브 제작사업, 미술나눔사업, 모교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의 설립배경과 본회의 미래계획 등에 설명했다. 이러한 본회의 활동을 청취한 정학장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 이후에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 모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며, 또한 본회가 주최하는 전시와 행사, 후원 등 동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활동과 미술인의 창작 열정과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세대와 연결하는 장학 사업 등의 참여와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2 ● 발행일 : [월간제36호] 2023년 2월 28일 ● 발행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발행인 : 권영걸 ● 편집주간 : 이민주 ● 편집국장 : 민수정 ● 편집 : 신지영 장주연 이하늘 명소연 박도현

본회소식

청소년미협과 업무협약

본회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이사장 장부남)와 지난 2월 8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갤러리B에서 가졌다. 협약식은 본회 권영걸 회장과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부남 이사장, 양 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S갤러리 심혜진 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간 주요 행사와 소식을 공유하고, 매년 1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신진작가 초대전을 갤러리B에서 개최하고, 양 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 각종행사를 후원한다는 것 등이다.

한효니전 성황리 개최

본회 기획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0일까지 갤러리B에서 개최한 한효니(한현정/08동양) 동문의 초대전이 전작품 매진되며 성황리 종료됐다. 8일 개막식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과 상임부회장단, 김성희 전 모교학장, 이부연 한울회장,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부남 이사장과 이영수 고문. 심혜진 갤러리B 관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전시를 축하하고 한동문을 격려했다. 응급실을 드나드는 투병생활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갖게된 이번 전시에서 한동문은 각각의 시간, 사건 등 다양한 삶의 조각들이 세상을 이루고 그러한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한동문의 완쾌를 기원하는 마음이 모인 결과, 출품된 모든 작품이 판매됐으며, 갤러리B 심혜진 관장은 작품배송 및 액자제작비 등을 부담함과 동시에 작품판매액 전액을 한동문에게 전달하기로했다.

회장동정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참석

본회 권영걸(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회장은 지난 1월 31일 성남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장성은 요크 대표, 고소영 모아컴퍼니 대표 등 디자인 관련 단체·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파대로조성 디자인자문위원장에 위촉

권영걸 회장이 송파대로 조성 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가 송파의 얼굴인 '송파대로'를 구 탄생 이후 35년 만에 명품거리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그간 테헤란로 등 서울 주요 대로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각종 제약으로 35년 전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한 채 주변 환경이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 지난 2월 19일 사업 밑그림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계획, 녹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가주동창회 신년모임

미국 남가주미대동창회 신년모임이 지난 1월 25일 로스엔젤레스 S-Village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전임 한석란(71회화) 회장에 이어 선출된 장원경(73응미)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 행사로 신임 장회장과 전임 한회장을 비롯하여 한귀희·백혜란·박다애·황영애·성수환·서동현·신희정·김영태·김윤진·이상훈·신혜자·오성주·김화자·신정연·신덕재·장정용 동문 등이 참석했다.

빌라다르 2023 개최안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빌라다르 2023'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최되는 빌라다르전은 광복이후 한국미술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원로세대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젊은세대까지 동문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으는 전시로써, 치열한 예술정신으로 모교를 빛내온 선배들과 한국화단의 주역이 될 후배들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교 졸업전시 동창회장상 수상작가전인 베리타스미술상전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작품 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품전도 마련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시명칭 : 빌라다르 2023(Villa D`Art 2023)
- 전시기간 : 2023년 4월 16일(일)~25일(화)
  ※월요일 휴관(4월 17일, 24일)
- 개 막 일 : 2023년 4월 16일(예정)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전관
- 참여작가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동문 200명이내
- 출품작품 : 평면(회화/사진/판화/영상) 및 입체(조각/공예/설치) 1인 1점
  (소품전에도 참가시는 소품 1점 추가)
  ※작품전시에 필요한 장비나 작품대 개인지참(유료대여가능/사전문의)
- 작품규격 : 평면-폭90cm×높이150cm 이내(액자 포함)
  입체-폭50cm×깊이50cm×높이150cm 이내(작품대 포함)
  ※소품-평면 45×45cm 이내(액자 포함),
  입체 25×25×25cm 이내(작품대 미포함)
  ※기타 세부적인 요강은 서울대미대동창회 네이버밴드 참조
- **참가신청 및 문의 : 동창회 사무국(02-555-1946)**

취임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정의철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매서웠던 추위와 폭설,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했던 기후위기 속에서의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캠퍼스가 신입생들의 설렘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대학 캠퍼스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창작의 열정을 지펴 나아갈 환경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로 설립된 이래로 지난 75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대학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QS Art & Design 분야에서 3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10위권 학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SNU 10-10 프로젝트」의 잠재학문분야로 선정되어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활용한 창작 실험, 그리고 학생, 동문,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의 예술 정신과 지식 교류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대학의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동문 여러분들께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 이후에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술대학 동창회는 전시와 행사, 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미술인의 창작 열정과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세대와 연결하는 장학 사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미래를 열어 가면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위상을 더 높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기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기술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다양한 교육 방법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미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은 끊임없이 인간의 표현과 창의 욕구를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형식을 역동적으로 창작하여 왔습니다. 변화의 원인과 동력을 이해하고 미술의 본질적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미래 사회에서 미술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대학의 미래를 만들어 갈 후속세대를 잘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동문들의 창작 실험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학장으로서의 소임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고 합니다.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들께서 미술을 통해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자양분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이는 변화와 위기를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교가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미술대학은 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동창회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같이 성장하는 길을 탐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교소식

신임 학장에 정의철교수

부학장에 민복기·이종건 교수

모교 디자인과 정의철(88산디) 교수가 지난 2월1일 모교 제21대 학장에 취임했다. 지난 2년동안 학생부학장으로 모교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정학장은 모교 산업디자인과에서 학사와 석사, IIT의 Institute of Design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전자 디자인멤버쉽, 삼보컴퓨터, Motolora, Institute of Design, 연세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모교 BK21 디자인사업단장, 그린리더쉽 운영위원, 그리고 디자인학회 논문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학생부학장 민복기(95공예) 교수는 모교 공예과를 졸업한 후, 독일 포르츠하임대학에 장신구와 일상문화사물 디플롬을 받았다. 이후 독일과 스위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12년부터 모교 공예전공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Korea Now!, 독일 Bavarian국립박물관, Korea Now! 한불상호교류의 해 기념전, 파리 장식미술관, 시간의 여정, 스페인 국립장식미술관 등의 국제전시를 통해 한국현대 장신구를 소개하고있다. 신임 교무부학장 이종건(98조소) 교수는 모교 조소과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피비갤러리(2020), 김세중미술관(2019), 갤러리 조선(2015), 금호미술관(2012)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금호영아티스트(금호미술관), Visual Arts Fellowship(FAWC), Emerging Artist Fellowship(Socrates Sculpture Park), Awards of Excellence(RISD) 등을 수상하였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부원장에 권대훈교수

지난 2년간 모교 교무부학장을 지낸 조소과 권대훈(90조소) 교수가 3월 1일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학습부원장에 취임한다. 기초교육원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난 2002년 설립되었다. 기초교육원은 기초교양교과의 편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기초교양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학부교육의 중추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권동문은 모교 조소과에서 학석사, 영국 런던대 슬레이드미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뜰리에아키(서울/2020), 라흐마니노프스갤러리(런던/2012-09), 갤러리풀(서울/2000)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The Jack Goldhill Award(영국왕립미술원), RBS Bursary Award(영국왕립조각가협회) 등을 수상했다.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모교는 지난 2월 24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77회 2023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동양화과 3명, 서양화과 10명, 조소과 5명, 공예과 7명, 디자인과 14명으로 총 37명에게 명예로운 학위를 수여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바 있으며,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것은 지난해 8월(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기 학위수여식으로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이번 학위수여식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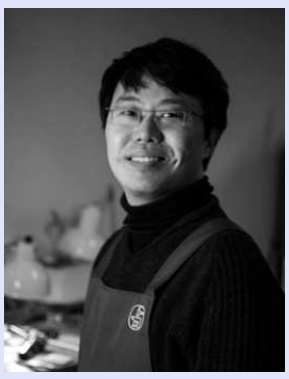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교와 MOU 체결

모교는 지난해 12월 22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교(University of Zagreb)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MOU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크로아티아 대사 H.E. Damir Kušen, 국제 교류 부학장Danko FRIŠČIĆ, 국제 프로젝트 관리자 Maja ROŽMAN, 영상 미디어 학과 교수 Milan TRENC, 대사관 비서 Marko Zoričić 가 참석했다. 자그레브대는 1669년 설립된 역사를 자랑하는 공립대학교로 디자인대학의 세부전공으로는 서양화, 그래픽디자인, 조각, 미술교육, 애니메이션&뉴미디어, 보존학과 등이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모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화적, 전문적 교류가 시행되리라 기대된다.

취임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부원장 권대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선후배님들 반갑습니다. 미술대 교무 부학장으로 인사를 드린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 2년간 부족함에도 많은 응원을 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성희 전 학장님과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이제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학습 부원장으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미술대 교무 부학장을 하며 기억 되는 여러 사안들이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입학식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매학기 수업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던 일이 가장 잊지 못할 큰 일이였습니다. 예산이 늘 부족하여 미대 공간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강사료나 입시예산을 늘이기 위해 전 학장님과 팔방으로 뛰어다니던 일도 잊지 못할 일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일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몇몇 우리 학생들의 사고 소식 이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심리 상담실 '미소'를 운영하며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학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양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기금을 출연해주신 여러 동문들과 장학금 및 간식지원 등을 해주신 동창회의 노력 덕에 한걸음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기관은 그들에게 지식의 교육만이 아닌 꿈을 펼칠 자리를 마련해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코자 미래 인재 교육으로 창의적 핵심 역량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미술대는 대학의 기초 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교육의 활성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술을 통한 창의적 역량 교육을 바탕으로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사고와 통합적 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술대 졸업생들의 큰 역할이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한 유홍림 총장님은 서울대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학부기초대학'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창의적 핵심역량교육을 위한, 학문단위를 초월하여 모든 신입생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학사조직으로의 개편이기에 서울대의 기초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초교육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보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기초교육원의 교수학습 부원장을 맡게 되었고 미대 동문들의 많은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번 이런 지면을 통해 인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창회에도 감사를 드리며 끝임 없는 미대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취임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부학장 민복기



안녕하세요. 새로 학생부학장을 맡게 된 민복기입니다. 미술대학 동문여러분께서 매년 젊은 후배들을 위해 여러가지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미술대학이 더욱 발전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졸업전시를 준비하는 기간에 따듯한 음식도 준비해주시고 훌륭한 후배들에게 전시의 기회도 열어주셔서 이제 미술대학과 동문회 사이에서 성장한 작가들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미술대학은 52동의 공사를 끝으로 길었던 리노베이션의 과정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길었던 코로나와의 싸움도 끝나고 이제 웃는 얼굴을 마주하며 세밀한 감성과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새 학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모든 문들이 닫히고, 얼굴과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지난 2년간 모든 관계들이 파편화되고 각자의 작은 방에서 아름다움을 꿈꾸고 말한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문께서 보내주신 축하의 인사말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던 희망에 대한 확언들이 모여서 가슴이 따듯해졌던 입학식과 졸업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러한 작은 격려들이 모여 가리키는 곳 그곳을 학생들도 잘 바라보며 견딜 수 있었기에 이제 이 새로운 봄을 더 큰 감사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열린 수업에서 더 풍부한 실습의 경험들, 모두와의 더 깊은 소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경을 넘어 원격으로 때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우리는 미술작품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서도 미술대학의 여러 모습들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무부학장 이종건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대학 교무부학장을 맡은 이종건입니다. 먼저 모교에 대한 동문 선후배님과 동창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안전하면서 원활한 수업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후배들은 창작의 열정을 이어갔고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과 새롭게 변화한 오늘을 작품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그 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다양한 학교 행사를 다시 개최하고 수업도 온전히 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입학식에는 신입학생과 학부모 등을 초대하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미술대학 본관의 리노베이션 공사도 완료되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캠퍼스는 신입학생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코로나 19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도 듣고 작업을 할 생각에 긴장도 되지만 마음이 설레기 합니다. 동문 여러분도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날씨 좋은 봄날에 학교를 방문하시어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기를 마치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 김현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미술대학 학생회장 김현수입니다. 처음 학생회장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친구들의 작업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점차 제 '친구들' 의 범위는 커져서 언젠가부터는 미술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안녕' 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해보고자 학생회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비교적 짧은 임기였지만, 임기동안 행한 많은 사업을 통해 학우분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처음으로 온전히 대의를 위한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학생회장과 집행부 '안녕단', 행정실 선생님들, 동창회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부학장 정의철 교수님과, 미술대학 동창회 분들께서 해주신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2023년에는 학생회장 후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누군가는 꼭 해보기를, 그리고 저보다 나은 미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는 학생회장이 아니지만, 미대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안녕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소식

오세정총장 이임식

서울대학교는 지난 1월 3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4년 임기를 마친 오세정 총장의 이임식을 열었다. 오세정 총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 동안 서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썼다"고 말했다. "취임 시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일은 코로나19 사태였지만, 도서관과 학생생활관을 운영하고, 대부분의 행정기능을 지속했으며, 교내 원스톱 PCR 검사시설을 도입해 집단감염 가능성을 줄였다. 이제는 대부분 정상화를 이뤘다"고 전했다. 복수전공·부전공 제도 확대 등 융합교육 활성화, 개편, 신임 교수 초기 정착연구비 상향과 창업지원단 설치, 국가미래전략원 설립 등 재임 기간 이룬 일들도 차례차례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오 총장은 "서울대 구성원들의 탁월한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 한 일이 서울대의 위대한 전통에 누가 되지 않고,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홍림총장 취임식

서울대학교 제28대 총장 유홍림 박사의 취임식이 지난 2월 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임총장, 학장 및 원장, 교수, 학생 대표, 직원 등 학내 구성원과 국·공립대 총장, 사립대 총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홍림 총장은 지난 2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총장 업무를 시작하였다. 유홍림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학이 수행해야 할 책무는 크고 엄중하다"며"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홍림 총장은 1984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미국 럿거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28년간 재직(1995-2023년)하였다.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기록관장·대학신문사 주간,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미국 럿거스대 정치학과 방문교수,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등을 지냈다.

총장, 사퇴 없이 연임 출마 가능

서울대가 현임 총장의 연임이 수월해지도록 학교 규정을 개정했다. 유홍림 신임 총장부터, 현 총장이 차기 총장에 출마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1월 17일 열린 국립대학법인 모교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모교 규정에 정확히 총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단, 모교 보직교수가 총장 후보에 지원하면 7일 이내 사퇴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다. 총추위는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전 소집돼 후보 모집을 시작한다. 따라서 연임에 도전하는 현임 총장은 임기를 약 6개월 남기고 총장직을 그만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된 총추위 규정은 총장 후보 지원에 따라 7일 내로 사퇴해야 하는 보직자 대상에서 총장을 제외했다. 총장을 사퇴하지 않더라도 부총장 직무대행체제를 도입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현 유홍림 총장부터 적용된다.

2023학년도 등록금 동결

서울대는 최근 개최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과 학생대표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모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지 않은 것은 올해로 15년째다. 2022년 1학기 기준 모교 등록금은 경영대 244만 2000원, 의대 본과 1학년 503만 8000원이었다.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는 제77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54명, 석사 1,708명, 박사 775명 총 4,637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했다.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새로운 출발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을 통해'자기 삶의 개척자'가 되고,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거침없이 앞세우는'용기있는 도전자'가 될 것을"을 강조했다. 이어 유총장은"지식과 능력을 주변과 나눔으로써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리더, 존경받는 지성인이 서울대인이었다는 자부심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학년도 새내기대학 개최

서울대학교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신입생을 초청하여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여정성 교육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1부 행사(학사 및 대학생활 안내, 명사 강연,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인권·성평등 교육)와 재학생 멘토가 진행하는 2부 행사(멘토링, 미션투어 및 팀파워프로그램)로 구성되며 최인철 교수(심리학과), 차해리 대표(아나운서, 파라스 엔터 창업), 이재윤 대표(집토스 창업) 등 서울대학교 출신의 선배 명사들이 나와 신입생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는 이번 새내기대학이 신입생들에게 서울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소속감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공을 넘어선 학생 상호 간 '수평적 네트워크'와 선배들과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함께 형성하는 기회로 학교생활 적응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사회공헌단 환경보호 활동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공헌단 '클리너스(Clean Us, Clean Earth)'팀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클리너스팀은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는 의미로 강릉 플로깅 활동을 기획하였다. 이는 해양 쓰레기가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점에 주목한 기획이었다. 약 80,000㎡에 걸친 강릉 사근진 해변에서 팀원들은 폐어구, 페트병, 담배꽁초 등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모아 분리수거했다. 또한, 동작역부터 반포 한강공원까지 유동인구가 많아 쓰레기가 많은 핫플레이스를 순회하며 쓰레기를 줍는 핫플로깅 활동도 진행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13년 2월 창설된 이래 대학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허브조직으로, 사회적 책임성과 혁신적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 실천을 해오고 있다.

새학기 식당운영 변동

개강을 맞아 몇몇 학내 식당 운영에 변동이 생긴다. 인력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점했거나 공사를 진행했던 몇몇 식당은 운영을 앞두고 있다. 제2공학관식당은 지난 2월 6일 이미 운영을 시작했으며 점심과 저녁에 뷔페식을 제공 중이다. 휴점이 계속됐던 감골식당도 오는 3월 2일부터 채식 뷔페를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사 중이었던 제4식당은 3월 15일부터 푸드코트로 영업을 시작한다. 해당 푸드코트에는 한식, 햄버거, 일식 코너와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생활협동조합 측은 현재 비어 있는 전망대 3식당 4층에 입점할 새로운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운영상의 변동이 생기는 식당도 있다. 교직원 식당인 자하연식당 3층은 지난 2월 23일 운영이 재개됐다. 그러나 기존의 서빙 서비스가 중단되며 메인 메뉴는 배식, 그 외의 밥과 반찬은 자율 배식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식사 운영을 중단하고 단체 식사 및 회의·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용도가 바뀐다. 한편 자하연식당 3층의 오후 1시 이전 학생 이용 제한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기숙사식당은 아침과 토요일 영업이 중단되며 제1공학관식당의 경우 1층만 운영될 예정이다.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입니다. 먼저, 오늘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서울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임총장님들과 총동창회장님,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빈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왕림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직에 취임하면서 저는 신입생으로 서울대학교와 첫 인연을 맺었던 43년전, 그리고 조교수로 갓 임용되었던 28년 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만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학생 시절, 그리고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짊어졌던 교수 시절을 지나, 이제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과업을 시작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구성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고,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일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겨레의 대학, 국민의 대학"이라 칭하는 말의 무게를 되새겨 봅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현장에는 항상 서울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의 탁월한 역량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에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총장의 임무는 이런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늘에 이어받고 내일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전통을 다지고 후속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경쟁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학이 수행해야 할 책무는 크고 엄중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의 일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상상이 미래를 만듭니다. 서울대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앞서 갈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의 틀과 내용을 선제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교육과 전공심화 교육을 새로운 형태로 결합하는 학사제도와 인류사회의 난제에 도전하는 창의적 융복합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계와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박애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복합적인 도전에 담대히 응하여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대학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변화에서부터 전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학 신입생이 1학년부터 소속 학과의 칸막이에 갇혀 특정 분야만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교문을 나서는 교육의 시효는 끝났습니다. 영역을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와 기성관념에 도전하는 비판적 사고를 갖춘 유연한 지성을 길러내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우러져 토론하고 논쟁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서울대 교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고의 공통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학사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울대 인재"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더 이상 대학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전공의 울타리를 넘어서 통합적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대학의 울타리 너머로 확장되어야 하고, 현장과 꾸준히 교류하고 현실을 통하여 검증되어야합니다. 기업-정부-대학을 연결하는 산-관-학 연구혁신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기술주도의 창업과 벤처를 적극 지원하여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과 연구를 공유하는'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과 어우러져 토론하며, 영역을 초월하여 연대하고 기성관념을 성찰하는 교육과 연구의 경험은 서울대인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국가와 인류 공헌의 글로벌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서울대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가 진정한 박애 정신의 실천과 연계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제가 그리는 대전환은 반세기전의 종합화와 10여 년 전의 법인화를 완성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통합을 발판으로 한 시너지 창출과, 자율과 창의를 북돋우기 위한 우리의 걸음이 더뎠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인재를 키우고, 거침없는 창의적 연구가 꽃피는 자율적인 대학 환경을 만드는 일이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 힘이 결집될 때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불신에서 비롯된 제도와 규제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를 바꾸는 힘은 우리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실천 의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열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는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거버넌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울대라는 터전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행복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학문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서울대의 모습입니다.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교육과 연구는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서울대는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지식과 인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에 보답하며 더 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러한'자유와 신뢰의 선순환'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서로용기를 북돋우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학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학문공동체라는 비전은 허영심의 표현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명령입니다. 저 자신부터 큰 용기를 내어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대학교를 향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가 국가와 인류의 희망을 살리고,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 설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대학교 총장 유 홍 림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김종섭회장 바하샤팀과 공헌활동

서울대총동창회 김종섭(66사회) 회장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여명석) '바하샤'팀이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진행한 현지 미취업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활동에 동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김종섭 회장이 8억원을 후원한 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롬복에서 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바하샤팀은 지난 2월 1일에는 현지 실무를 담당하는 '3S(SNU-Samick-Sustainability)센터'를 마타람대에 개소했다. 발리 인근에 있는 롬복은 빈곤율이 13% 가량으로 높지만 린자니국립공원, 딴중안비치 등 뛰어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헌단은 현지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한국어, EPSTOPIK(한국 취업용 시험) 컴퓨터기술 등 관광 분야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UNAS대 한국어학과 교수와 마타람대 공대 교수 등 현지 단원 12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론 중심 교육을 하고, 모교 재학생·교수 등 13명의 단원은 1월에 현지로 가서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대상 100명을 모집하는 데 262명이 지원하고 최종 75명이 수료했다. 김종섭 회장도 활동 현장을 방문해 '꿈과 희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공헌단 활동의 거점이 될 3S 센터 개소식과 수료식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보여줬다.

튀르키예 재난성금 10만불 전달

총동창회는 지난 2월 9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현장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10만 달러(한화 1억2630여 만원)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한편 총 47억6000여 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며 지난해를 마무리한 총동창회 관악회에 새해 첫 달부터 장학금 기부가 이어졌다. 지난 1월 25일 이원섭(59법대) 동문이 총동창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피종진(ABKI 12기) 동문이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선리(64사학) 전 난우회 회장이 결연장학금으로 900만원을, 류명준(90언어) 동문이 707만2000원을 추가 기부했다. 최성순(AIP 61기) 동문은 사회공헌기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공헌단 협력모색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주선·류진)는 지난 1월 16일 충정로 풍산빌딩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년에 진행한 서울시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서울대 동문 지원과 더불어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협력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 사회공헌기구인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연 2차례 해외에 대규모 공헌단을 파견해 재능기부와 지식나눔 등 대학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계획안에서는 동문이 함께 할 수 있는 국내외 공헌단 사업으로 '라오스 SNU공헌단'과 '다문화 공헌단'을 제시했다. 김종섭 회장은 "해외 봉사활동을 학교와 함께 한다면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는 셈이므로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헌단 활동에 지역 동문을 참여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임현진 위원은 "졸업생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하버드대 시스템을 이용해 지역 체인지메이커 스토리를 발굴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여명석 위원(글로벌사회공헌단장)은 "라오스 SNU공헌단은 동문 자문위원과 교수, 재학생 등 총 50여 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라오스 나봉지역에서 농축업 적정기술과 교육나눔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문화 공헌단은 재학생 20여 명과 동문 자문위원 4~5명이 4박 5일간 난민, 탈북자,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SNUA몰 카카오톡채널 개설

서울대 동문 전용 온라인쇼핑몰 Mall SNUA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이전에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신상품 및 이벤트 소식을 전했지만,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됨으로써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Mall SNUA는 현재 70여 개 업체가 입점해 2700여 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패션의류, 패션잡화, 뷰티, 식품건강, 디지털가전, 생활주방, 인테리어가구, 유아동, 스포츠, 문구취미, 기업MRO 소비재, 기프트카드 등 모든 카테고리의 상품이 완비됐다. 취급품목과 함께 회원 수도 계속 증가 추세다. 1월 말 기준으로 6000여 명의 동문들이 Mall SNUA에 가입한 것. '젊은 동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창회 참여를 장려하자'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50대 이하 젊은 세대가 80%에 육박하며, 특히 40대가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Mall SNUA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열(68응용수학)단장은 Mall SNUA의 올해 1월 매출이 작년 11월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점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몰의 특성상 1원이라도 싸야 구매가 이뤄지는 환경이란 점에 주목해 동문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제 25회 관악대상 시상식

-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6시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소공동)
- 행사내용 : 정기총회, 관악대상 시상, 만찬, 축하공연 등
- 참석범위 : 500여 명(사전예약 필수)
- 참가방법
  - 신청기간 : 3월 3일(금)까지(이름,학과,입학연도,휴대전화번호기재)
    *특별과정은 과정명 및 기수 기재
    문자(전화불가)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or.kr
  - 참가비 : 5만원
    참가비계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명과 입학연도 표기

3월 조찬포럼

- 일 시 : 3월 9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 강 연 자 : 박진 외교부 장관
- 주 제 :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 신청방법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 문자(전화불가)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or.kr
  - 참가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행사명과 성명 기재(예_홍길동3월조찬)

3월 수요특강

-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전영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여백서원 원장
- 주 제 : 파우스트의 21시간 완본판 공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 [행사명:3월수요특강,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전화불가) 1599-7704,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or.kr
  - 참가비 : 2만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행사명과 성명 기재(예_홍길동3월수요)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후원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1-2.28)-가나다순

이 사 회비 이정연(82회화) 최명애(70회화)

일 반 회비 강혜원(석22동) 김두희(석17디) 김민경(12동양) 김선영(86동양) 김은정(81회화) 김재철(83산미) 김지수(06동양) 김철효(63회화) 김호걸(53회화) 박희자(64회화) 배세나(01서양) 서동수(86서양) 서동희(66응미) 손지윤(17동양) 손희옥(68회화) 송정은(91서양) 신경훈(74응미) 신승재(94서양) 안리오(98디자) 양여진(석22동) 윤은선(85공예) 이보람(00서양) 이상은(86서양) 이은정(79회화) 이주원(87동양) 이지선(82회화) 이태리(06조소) 이홍구(85산미) 임혜영(83조소) 장승원(81회화) 조수현(20공예) 최국강(62응미) 최영자(63응미) 최재영(87동양) 최홍순(63회화) 한석란(71조소) 한현정(08동양) 황희정(97서양)

평 생 회비 김홍규(83공예) 박도현(16디자) 전민숙(74조소) 최윤영(96동양)

후 원 금 ●조은경(61회화) 12만원
●김소선(63조소) 3만원 ●최명애(70회화) 3만원

광고 후원금 ●민수정(82회화) 20만원 ●디팩 14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엄기원(95동양) 모친상 2023년 2월 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가 http://snuarta.or.kr 로 변경되었습니다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호	가로	세로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100*80	6,6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0*130	8,8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150*125	13,2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140*170	14,3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150*190	16,5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갤러리 탐방

갤러리 더 플럭스
이승훈(86서양)

갤러리 더플럭스, 더플로우는 어떤 공간인지?

갤러리 더플럭스, 더플로우는 한 층에 두 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19년 11월 22일 개관하였고 그 모태는 2008년 3월에 개관한 사이아트갤러리(현재 사이아트스페이스로 개칭)이다. 현재는 1층에 사이아트 큐브, 지하1층 사이아트 스페이스, 사이아트 도큐먼트, 2층 갤러리 더플럭스, 갤러리 더플로우 등 총 5개 공간으로 나누어서 공간을 운영 중이며 전체 명칭을 사이아트센터로 칭하고 있다. 사이아트스페이스와 사이아트도큐먼트는 일부분 대안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진작가 혹은 중견작가를 대상으로 특별한 기획전시를 진행을 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매개로 관객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을 개발하는 등 독특한 개념의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그리고 갤러리 더플럭스와 더플로우는 갤러리 고유의 커머셜한 기능을 확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만 사이아트센터에서는 이처럼 확장된 공간을 통해 4~5개 공간을 연결하여 대규모 전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신진작가를 육성해오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가는?

2008년 이후 15년 가까이 뉴디스코스 작가공모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작가공모를 통해 전시를 진행해 왔으며 사이아트센터는 신진작가 및 역량 있는 작가들을 선정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해 왔다. 뉴디스코스 작가공모는 신뢰 받는 공모가 되어왔으며 여기에는 서성록을 비롯하여 김복영, 박영택, 고충환 등의 평론가와 정연심, 백기영, 박천남, 유한승 등 미술관 및 대학에서 중심적 활동 해온 미술계 인사, 그리고 심상용, 최태만, 박춘호, 허윤정 등 모교 동문 출신의 미술계 전문가들도 심사를 하였다. 발굴한 작가 중에는 홍익대학교 권순왕 초빙교수를 비롯하여 교수로 활동하는 다수의 작가들이 있으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가로는 프랑스 작가 니꼴라 마네티, 뉴디스코스 대상작가로 동양대학교 김태은 교수, 뉴디스코스 대상작가인 모교 동문 고태화 작가 등이 있다.

현재 권여현(81회화), 정상곤(83서양) 동문을 전시하게 된 동기는?

·同床異·感을 화두로 하여 동시대에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감각>이라는 지점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상곤은 일상적 풍경에서 보게 되는 자연을 그려내면서도 감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 영역 너머의 세계에 대한 서사를 회화 작업에 담아내고 있으며 권여현은 감각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는 감각의 순간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존재적 한계 지점과 관련하여 감각의 조건이자 존재의 조건에 대해 직시하고 이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감각의 상황에 대한 작업이면서 동시에 감각 주체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고 본다. 두 작가는 이처럼 감각이라는 지점을 내용과 형식에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가고 있다. 이 극명한 비교점은 예술에 대한 사유, 감각에 대한 사유 영역에서 그 층위를 넓혀줄 수 있는 색다른 전시 기획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글도 쓰고 있다는데, 특별히 기고하는 곳이 있는지?

전시기획을 위한 글쓰기 및 미술비평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으로 미술평단에 기고하고 있으며 외부 평론 작업과 함께 사이아트센터에서의 기획 전시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전시 평문을 쓰고 있다. 미술평단에 실렸던 글은 '현전(現前)에 대한 역설; 비움의 수사학'(홍익대 지석철교수 퇴임기념전 평문/미술평단 2019가을 제134호), '발터벤야민과 리히터 사유방식 비교' (미술평단 2018가을 제130호), '디지털시대의 리얼리즘'(미술평단 2009여름 제93호) 등이 있다.

문화발전을 위해 사회에 하고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느낀 것을 표현하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언하고 기록해낼 수 있다면 그러한 작업을 한 모두가 예술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을 수단으로 여기기 보다는 삶을 예술적 실천의 장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동문들 특히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술 분야를 전공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이라는 영역은 사실 그 자체가 특별한 목적성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수면이나 식사가 삶의 한 양태이듯 예술도 삶의 영역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을 전공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일이 더 필요하다.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늘 현재 무엇을 이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동창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동문전 등 동문 전체 행사가 있을 때 동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이벤트의 기획을 원한다. 지방이나 해외 거주동문을 위해 유튜브방송이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고 저장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위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이뉴스의 PDF파일이나 E-book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송하여 동창회에 참여와 관심을 늘리길 바란다

모교에서의 추억은?

대학생활 과정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아가기 위한 자기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서의 교수님, 동문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 보냈던 시간이 이후 본인의 경험과 같이 추억이 되고 삶에 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갤러리 더 플럭스

주 소 :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28 2F 전 화 : 02-3663-7537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 김인중(59회화)

김인중 동문이 지난 2월 17일 제26회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렸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김동문은 유화로 시작해 스테인드글라스, 도자로 작품 반경을 넓히더니 최근에는 유리공예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주는 문화예술훈장인 '오피셰'(2010)를 받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 '아카데미 프랑스 가톨릭' 회원(2016)에 추대되는 등 사제가 아닌 화가로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위원단은 "제26회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은 빛의 화가 김인중 베드로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추천작품상에는 조각분야 김혜진 아가타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가톨릭미술상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한국 가톨릭 성(聖)미술의 토착화와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상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65년 한국미술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과 파리가톨릭대학에서 수학하고 1974년 프랑스 도미니코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전 세계 200여 회 전시와 프랑스 샤르트르대성당을 비롯한 유럽 50여 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해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상하였다. 현재 카이스트 중앙도서관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맡고있으며 동시에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2 개인기부자 1위 홍라희(63응미)

홍라희 동문은 지난 1월 15일 공익법인 평가 기관 한국가이드스타가 공개한 '2022년도 개인 고액 기부자 30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1조1억원을 기부하며 개인 기부자 중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동문의 기부금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에 전달됐다.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을, 소아암 및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3000억을 기부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2022년도 국세청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특수관계 법인이거나 언론보도된 경우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뉴밀레니엄 디자인혁신 정책과정을 수료하였다. . 중앙일보 출판문화부 부장과 이사, 상무를 거쳐 삼성문화재단 이사와 호암미술관 관장을 지냈다. 그 외에도 예술의전당 후원회 부회장, 불이회 회장, 아름지기 이사, 현대미술관회 회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기획전시와 미술 교육 프로그램,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등 한국 예술계를 후원해왔다. 2004년부터 2008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술의전당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

2023년 대한민국 명품도서 인증 대상 이순종(70응미)

이순종 동문이 집필에 참여한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미래전략'(박영사 출간, 국제미래학회 저)이 대한민국 명품·인증위원회와 세계기록인증원에서 지난 2월 2일 개최한 2023년 대한민국 명품 인증 대상 시상식에서 '2023년 대한민국 명품도서 인증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품·인증위원회와 세계기록인증원은 측은 명품도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미래전략'이 남녀노소 누구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의 산업과 비즈니스와 생활에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전략을 이해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저술되어 있다"며, "도서 내용이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저술되어 있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읽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전략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도서"라고 전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학사, 동대학원 미술학 석사와 일리노이공과대학 대학원 디자인학 석사를 취득하고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교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총회 (ICSID)의 집행부위원장,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래 초대감독, 한국디자인학회 회장(2004~2005),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2012~2013), 전국미술디자인대학 학장협의회 회장(2013-5)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으며, 모교에 한국산업디자인연구센터 (KDRI)을 설립하여 아시아 디자인저널을 발간하고, 매년 국제문화디자인회의(IDCC)을 개최하는 등 한국 디자인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서울교방 공연 김경란(75조소)

김경란 동문의 서울교방 공연 '서울교방, 권번춤 나들이'가 지난 2월 18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혼과 미적 개성이 집약된 교방춤·권번춤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였다. 공연의 구성은 20세기 교방명인 김수악·장금도·조갑녀의 춤을 서울교방 '김경란류 권번예맥'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이다. 김동문은 제자 70여 명의 전문 춤꾼들이 모여 이룬 수련터이자 네트워크인 서울교방을 만들어 조선시대 교방과 일제강점기 권번에서 계승된 춤을 현대화해 공연해오고 있다. 남산국악당은 "한류의 세계화 흐름 속에 문화적 자신감과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한국의 혼과 미적 개성이 집약된 교방·권번 예맥의 춤을 통해 소중한 문화예술성이 확인되는 무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학교 시절 현대무용을 배웠던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다니다 본격적인 학생운동과 탈춤과 마당극 등 민중문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모교를 중퇴한 뒤 연우무대, 한두레 등에서 문화운동을 하였다. 만신 김금화에게 내림굿을 받고 김수악 선생에게 춤을 사사받으며 전통춤을 전승받았다. 현재는 전통춤을 전승하고 공연하며, 무용인들의 컨설팅과 플랫폼 역할을 추구하는 서울교방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저서 '우리미술 이야기' 최경원(86산미)

최경원 동문의 저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비밀 – 우리 미술 이야기 3'이 지난해 11월 11일 더블북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최동문의 미술 인문학 시리즈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비밀 – 우리 미술 이야기'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철학의 나라-조선' 편은, 무기력하고 고리타분한 나라로 오해되는 조선이 실제로는, 철학이 깃든 명품을 만들고, 서양보다 수백 년 먼저 추상미술이 대세였고, 왕실 물품에서 서민의 일상도구까지 예술의 민주화를 이룬 나라였음을, 서른네 가지 역사적 소재들을 통해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도자기, 조각, 그림은 물론이고 옷과 가구와 식기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 당대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을 가늠케 하는 첨단 무기들, 중국·일본과 다른 공간미학을 품은 건물들까지 골고루 아울러 풍부한 그림·사진까지 곁들인 이 책은, 디자인으로 읽는 조선의 라이프스타일 백서로서, 일상 전반에 광범위한 미술이 함께 했던 조선의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현재 '현디자인연구소'의 대표로, 한국 문화를 현대화하는 디자인 브랜드 '홋컬렉션'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Good Design :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붉은색의 베르사체 회색의 아르마니', '르 코르뷔지에 VS 안도 타다오'등 열한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최동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릉 레지던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권대훈(90조소)

권대훈 동문이 지난 2월 11일 강릉문화재단이 명주예술마당에서 개최한 아티스트 토크 'from North to South, from West to Far EAST"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아티스트 토크는 강릉지역 작가들의 적극적인 외부 소통 기회를 늘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권동문과 지역예술인들이 다수 참여했다. 강릉문화재단이 지난해 처음 시행한 레지던스 사업은 지역 또는 타지역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 공간과 전시·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토크쇼에 출연한 입주작가들은 그동안 강릉에 머물며 직접 느낀 경험담과 함께 강릉이라는 지역이 작가 개인이나 작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레지던시 사업의 심사위원이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권동문도 자리를 함께하며 사업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그동안 지역적 한계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지역 청년 예술인들은 저명 작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작품 활동을 지켜보며 포트폴리오 작성 등 실질적인 노하우 등을 배울 기회를 가졌다.

호남대 제 4차 콜로퀴엄 초청강의 조인호(96동양)

조인호 동문이 지난 2월 8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열린 제 4차 콜로퀴엄에서 '동양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시대 흐름에 따른 전통 회화의 특징적인 면을 고찰하고 다양한 근현대, 동시대 회화 작품을 통해 새롭게 변용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한국화의 오늘과 미래를 살펴보았다. 조동문은 이번 강의에서 '회화'가 시각적 이미지 중심의 전달 매체라고 하면서 동양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언급했다. 조동문은 '동양화는 어때야

한다'라는 관념을 뛰어넘어 경계를 허무는 확장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통을 새로운 환경과 맥락 속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효용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문은 모교 졸업 후 동대학원 동양화전공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2017 '淸風청풍'(한벽원미술관) 등 11회의 개인전과 2016 'Voice of Asia'(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등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모교 동양화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수상후보선정 박윤선(99디자인)

박윤선 동문의 작품 '부부와 친구들'(Boubou et ses amis)이 지난 제 50회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아동 부문 수상후보에 올랐다. 비록 수상은 불발되었으나, 박동문은 이번 만화 축제 기간 내내 비스코토, 뒤퓌, 미즈마 등 프랑스의 유명 출판사들이 잡아놓은 사인회 일정과 팬들과의 만남 등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층을 가진 박동문의 작품이 앙굴렘 만화축제 아동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2019년 '홍길동의 모험', 2020년 '고양이 클럽'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앙굴렘 만화축제는 프랑스어권 서점에서 지난 1년간 프랑스어로 출판된 책들을 엄선해 6개 부문에서 수상 후보를 선정한다. 올해 아동 부문에는 박동문의 '부부와 친구들'을 포함해 총 18개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였고, 2008년 만화의 도시 앙굴렘으로 떠났다. 앙굴렘에서 운영하는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밤의 문이 열린다'를 세상에 내놓은 그는 햇수로 15년째 앙굴렘에 살고 있다.

뉴발란스 성수 팝업스토어 공연 임성빈(빈지노/08조소)

임성빈(활동명 빈지노) 동문이 지난 2월 17일 이랜드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의 990v6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성수동 마크69 팝업스토어에서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 날 팝업스토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뉴발란스 990 히스토리 전시와 출시 전 990v6를 직접 신어보고 만나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직업, 인종, 체형, 착장의 사람들이 990v6를 소화하는 모습을 담아 패션부터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는 캠페인이었다. 임동문은 배우 변요한, 벨보이 매거진편집장 박태일 등과 함께 이번 행사의 17일 프젠테이션 행사 글로벌 캠페인 런칭과 함께 캠페인에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조소과 재학중 사운드 클라우드에 작업한 음악을 올리며 2009년 그룹 P SKOOL의 객원래퍼로, 2010년 그룹 Hotclip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EP '24 : 26", 싱글앨범 'Dali, Van, Picasso', 'I'll be back', 정규앨범 '12', 'Lifes Like' 등의 음반을 발표해 국내 힙합계에 큰 반향을 몰고 왔으며, 디자인 스튜디오인 IAB studio를 설립해 앨범 아트워크 및 카카오프렌즈, 게스, Lee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작업을 해오고 있다.

S-ARTMALL

에스아트몰은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프라이빗 갤러리입니다.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과 서울대학교 동문들을위한
특별 할인을 통해 작품소장의 기회를 넓히고
일상속에서 미술작품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artmall.com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3월의 기획전
〈My First Collection〉

시작의 달 3월을 맞아 컬렉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에디션과 아트포스터를 선보입니다.

시선 김창열(48회화/1929-2021)

김창열 동문의 추모 기획전 '시선'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실제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롱한 물방울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었다. 이번 기획전은 김동문의 차남 김오안 감독이 아버지의 인생과 예술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제작한 영화'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와 가족의 시선을 연계한 전시로, 작품 총 11점을 선보였다. 차남 김오안 감독은 영화'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를 통해 아들의 시선에서 아버지 김동문의 침묵을 이해하고 가족들이 아버지를 바라본 시선까지 더해 기존의 물방울에 더욱 풍성한 해석을 입혀 아버지의 삶을 풀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이후 뉴욕 아트스튜던츠리그와 파리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부 교사로 일하기도 했던 김동문은 런던과 파리 등 해외를 오가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였고,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와 오피시에, 그리고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회고전 이우환(56회화)

이우환 동문의 회고전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일본 고베에 위치한 효고현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앞서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가진 개인전의 순회전이라 작가 이우환이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동문이 추상표현주의를 시도하던 60년대의 작품 '풍경(1968)'연작과 본격적인 모노하 시절을 보여주는 60-70년대의 '관계항'연작, 그리고 70년대 이후 회화로 넘어간 그의 작품과 80년대의 바람 시리즈, 공간을 채운 설치작품들까지 등장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중퇴하고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한국과 일본, 유럽과 미국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니혼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뒤 미술평론가로 데뷔했으며, 당시 재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설치미술을 '모노하'라고 새로 명명하며 그 흐름을 주도하고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71년 파리비엔날레에 초대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독일 등 유럽에서 전시를 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로 뻗어간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 2013년 금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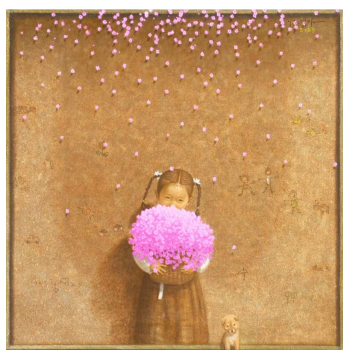
분화(分化) 송영수(50조소/1930-1970) 최만린(54조소/1935-2020) 최의순(53조소) 최종태(54조소)

송영수, 최만린, 최종태, 최의순 동문의 단체전 '분화(分化)'가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들 동문은 한국전쟁 직후 모교 조소과에 입학해 우성 김종영(1915~1982) 전 모교교수에게 교육을 받았다. 이번 '분화(分化)' 전시는 네 작가가 각기 어떻게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나갔는지 조망한다. 최만린 동문은 서구 인체 조각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적 감성에 뿌리를 둔 작업을 해 나갔으며, 철조 조각의 선구자인 송영수 동문은 일찍부터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수용했다. 반면 최의순 동문은 석고만을 이용해서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최종태 동문은 인체만을 조각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종태 동문은 이번 전시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은 세대다. 해방되고 미술대학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 입학해서 한 교실에서 공부한 1세대"라고 말했다.

무아행 오수환(65회화)

오수환 동문의 개인전 '무아행'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에서 열렸다. 이번 기획전은 대구에서 20여 년 만에 열리는 오동문의 개인전이었다. 1980년대 구작부터 근작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을 모두 보여주는 첫 전시인 동시에, 작가의 드로잉을 만나볼 수 있는 첫 전시였다. 1전시실에서는 1980~90년대 작품과 2m가 넘는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 '곡신(谷神, God of Valley, 1989)'이 눈길을 머물게 했다. 도덕경에 나오는 단어인 '곡신'은 골짜기의 텅 비어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무위자연의 모습으로 만물이 모여드는 근원을 의미한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김수근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 명예교수로 재임중이다.

그리움 이혜민(74응미)



아스라한 그 시절의 고향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이혜민 동문의 개인전 '그리움'이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청담동 청화랑에서 열린다. 산업화 이후 우리는 고향 상실을 애달파 했다. 도시로 몰려들면서 공간적 격리에서 오는 향수도 있었지만,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진 변화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됐다. 그러다 보니 향수는 노래와 시의 단골 소재가 됐다. 1954년생인 작가는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린시절을 보냈다. 형제가 많았던 작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년시절을 양평의 외갓집에서 보냈다. 이후에도 방학이면 언제나 시골 외갓집에서 지냈다. 작가는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작업을 했다. 20년 전부터는 아예 양평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그림을 마주하고 있으면 바쁜 세상의 속도에 미쳐 챙기지 못하고 흘려 버렸던, 그리운 고향과 순수했던 날의 아스라한 추억이 마음을 흠뻑 적신다. 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고향집 담벼락 앞에 선 수줍은 아이들의 표정을 통해 정겨웠던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산의 시간을 그리다 이담(78회화), 김근희(78회화)

이담 동문과 김근희 동문의 전시회 '이담 · 김근희 원화전-산의 시간을 그리다'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부산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과 김동문의 비주얼 에세이 '설악산 일기'의 원화를 전시한다. '설악산 일기'는 설악산에서 보낸 10년을 식물 그림과 함께 풀어냈다. 부산도서관은 원화전에 이어 북토크도 준비했다. 2월 4일과 5일에는 이담·김근희 동문의 북토크와 이미리 작곡가가 책을 읽고 작곡한 음악 공연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이동문과 김동문은 부부로 서울대 서양화과와 미국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아트 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다. 두 동문은 한국과 미국에서 순수회화 작가 겸 창작 그림책 작가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그림책 '폭죽소리'는 1996년 볼로냐어린이도서전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복선伏線을 넘어서 Ⅱ 홍승혜(78회화)

홍승혜 동문의 개인전 '복선伏線을 넘어서 Ⅱ(Over the Layers Ⅱ)'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제갤러리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컴퓨터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해온 벽화부터 조각, 사운드, 조명에 이르기까지 홍동문의 다채로운 문법을 아낌없이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평면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레이어를 담고자 했던 2004년 국제갤러리에서의 전시 '복선伏線을 넘어서(Over the Layers)'의 후속편으로 구상됐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유기적 기하학'(국제갤러리, 1997), '광장사각廣場四角'(아뜰리에 에르메스, 2012) 등 30여 회의 개인전을 선보였다. 단체전으로는 광주, 부산, 서울 미디어시티 등 국내 주요 비엔날레를 포함,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이탈리아 볼로냐 현대미술관 등 다수의 국내외 주요 기관 전시에 참여했으며 1997년 토탈미술상, 2007년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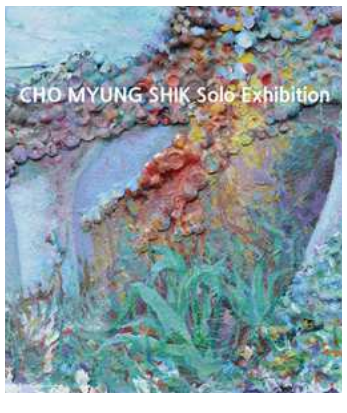
낯선 숲의 일탈자들 권여현(81회화)

권여현 동문의 개인전 '낯선 숲의 일탈자들'이 지난 2월 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더플럭스에서 열렸다. 권동문의 작품은 일탈자의 장소를 한 데로 집결하여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공간을 작품 속에 표현했다. 작품 속 일탈자의 장소는 언뜻 보았을 때 평화로움이 느껴지고 자유롭고 몽환적인 무드를 형성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물들은 평화로움 속에 강렬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일탈자들의 제스쳐와 무드는 어느 순간 관람자에게 전달되고, 관람자는 작품 안의 낯선 공간에 도착하고 자신이 일탈자가 된 느낌을 만끽한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서양화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0년 제13회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원광대학교,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SCENE DE BALLET 황우철(81회화)

황우철 동문의 개인전 'SCENE DE BALLET'이 지난 2월 7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펄에서 열렸다. 황동문은 딸이나 작가 자신 또는 그의 곁을 영원히 떠나간 아버지나 동생을 모델로 일상을 그려왔다. "그림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면에 이미 '애착 관계에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작가는 가장 관심을 가진 대상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정성의 문제와 연결되니까요." 이번 개인전에도 바이올린을 켜는 딸의 모습을 그린 '소녀와 바이올린' 연작과 무용을 연습하는 딸의 모습을 그린 작품 '발레 소녀와 청색 말' 연작, 추수하는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자신을 그린 작품 '화부' 등 15점이 걸렸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대학을 수료하고, 미국의 가장 큰 아트스쿨 중 하나인 뉴욕 프랫인스티튜트 졸업, 와세다대학 영화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창작활동을 펼치다 일본행을 감행, 영화이론과 실제를 공부하고 영화와 그림을 병행하고 있다. 황동문은 현재 상해교통대학 문화창의산업대학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가공약의 회화 풍경 조명식(82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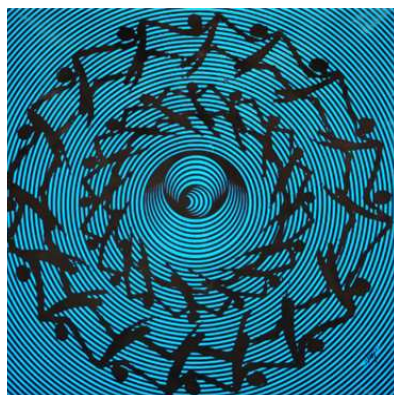


조명식 동문의 신년 특별 초대전 '불가공약의 회화 풍경 – Incommensurable Field'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감천문화마을 갤러리 우주의 바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주변 풍경을 비롯한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는 고유성과 그 에너지들의 조합을 작가만의 색채로 표현하며 이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생명이 가지는 유연한 에너지의 비가시적인 질서를 보이고자 하는 전시로, 조동문은 "주변 풍경에서 비롯된 형태, 개인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저 자신은 각각의 그림에서 통섭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조합을 이룬다"고 말했다. 조동문은 "대지에 깃든 생명력은 제 주변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유연한 에너지이고, 저의 작업은 대상에 접근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3년 동아미술제 특선, 199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012년 올해의 미술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결핍의 풍경 : 겨울숲 정상곤(83서양)

정상곤 동문의 연립전이자 개인전 '결핍의 풍경 : 겨울숲'이 지난 2월 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더플로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同床異感'이라는 공통의 화두로 권여현 작가와 함께 갤러리 더플럭스, 갤러리 더플로우에서 연 콜라보레이션 기획전시였다. 개인전 형태의 연립 전시를 통해 같은 무대(Stage) 위의 두 작가의 이 시대에 대한 다른 감각 방식과 다른 해석 방식을 고찰해 보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정동문은 '결핍의 풍경: 겨울 숲'이라는 주제로 감각의 한계 너머의 또 다른 감각의 세계에 대한 시각을 열어 보여 주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하였다. 42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199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1992년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1997년 크라코프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심사위원상, 1998년 탈린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Grand Prix등을 수상하였다.

LOOK 고완석(84동양)



고완석 동문의 초대 개인전 'LOOK'이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서면 본점, 동래점, Gallery Arte Marco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30회 개인전으로 "LOOK"을 주제로 부산 롯데 백화점 3곳에서 동시에 8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고동문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반짝이는 표면에 감상자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울이라는 장치를 작품에 이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독창적인 상기법을 이용해 작품을 창작한 이번 전시는 감상자가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감상자에게 모든 만물의 진리와 존재감을 스스로 찾아보는 "바라보기(LOOK)"의 사유적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단국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Into the Candyverse 노준(89조소)

노준 동문의 개인전 'Into the Candyvers'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이토갤러리에서 열렸다. 노동문은 그간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과 행복을 의인화한 동물 등의 모습으로 표현해왔다. 다양한 소재와 컬러, 형태의 실험을 더한 Candy 시리즈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이번 전시는 노동문의 캔디페인팅 신작을 소개했다. 캔디버스란 맛이 달고 잘 녹는 사탕(Candy)와 현실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 노동문이 꿈꾸는 모든 갈등과 다툼이 해소된 이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비추었다. 한편 노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회 포스코스틸아트어워드 본선작가상, 제19회 김세중 청년조각 등을 수상하였으며 9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Onset of spring 정상곤(83서양) 함미애(81회화) 류지선(89서양)

류지선, 정상곤, 함미애 동문의 3인전 Onset of spirng'이 지난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베카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세 동문이 'Onset of spring'라는 전시명으로 작품 29여점을 선보였다. 류동문의 작업에서 집을 태우고 있는 말은 집이 갖는 변화성의 반영체이다. 집과 달리 기본적으로 변화의 의미체인 말은 고정의 의미 또한 포함한다. 한편 정동문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붓 터치들 사이 혹은 사물과 배경의 경계 어딘가에 비백과 같은 '문'을 만들어 그림의 숨구멍을 내는 일과 비교해 본다. 그것들을 의심하고 다시 보면서, 그 어떤 것도 무심히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함동문은 먹과 필의 밀고당기는 변증법적인 율동으로 태초를 흉내내 속삭임 또는 외침으로 미술의 어법을 사용해 꽃을 통해 피안의 세계를 탐구하는 작품을 그려왔다. 한편 류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외 개인전 40회와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현 진주교육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베를린, 탈린, 동경, 후쿠오카, 노보시비르스크 등 국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총 42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함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과 단체전 110여회에 참여하였다.

물들다 신수진(91서양)

신수진 동문의 개인전 '물들다'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메타갤러리 라루나 온라인 웹사이트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프라인 갤러리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온라인에서 50여 점, 오프라인에서 30여 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는 메타갤러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을 온라인상에서 가상 현실(VR)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전시다. 각 코너에서 도슨트가 작품 주제와 형식을 설명해준다. 신동문은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전시관은 희림건축에서 설계했는데, 제 작품의 특성을 살려 현장서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만들었다"고 했다. 관객이 참여해 작품의 계절을 바꾸게 하거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공간도 있다. 신동문은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조명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해 왔다. 식물의 씨앗, 여린 잎 등 아주 작은 것들의 무한한 증폭을 통해 큰 풍경을 만드는 작업을 해 왔다. 각각의 존재는 다름으로써 가치가 있지만, 서로에게 물들며 조화를 이룬다. 판화와 회화를 결합해 독특한 미감을 창조하는 것이 신동문의 작업 특징이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졸업후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에서 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대학원에서 20년째 판화를 가르치고 있다.

Perfect Green 김건일(92동양)

김건일 동문의 개인전 'Perfect Green'이 지난 2월 15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메타갤러리 라루나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실제의 숲이 아닌 '상상의 숲'을 그린다. 숲은 표면상 단일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 안으로 들어가 볼수록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숲의 특성을 기억과 연관시켜 이야기 한다. 하나의 기억은 우리의 관점 혹은 욕망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불완전성을 가진다. 숲의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와 마음 속 심연에 대한 고뇌를 캔버스에 풀어놓는다. 초록의 물감을 캔버스 가득 채우고 천을 이용하여 지우고, 그 위에 물감을 다시 바르고 또 지워내며 이미지를 중첩 시킨다. 이러한 그의 회화 기법은 기억에 대한 관철, 망각, 왜곡과 오버랩 등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작품은 원근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라루라는 이번 김동문의 전시를 통해 'View in Room'와 'Mobile AR'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작가의 작품을 샘플 공간과 방문객의 개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한 것이다.

바다가 없다 신기운(03졸업조소)

신기운 동문의 개인전 '바다가 없다'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뮤지엄 원(MUSEUM1)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재 뮤지엄 원에서 진행하는 '치유의 기술'에 참여한 신동문의 개인전으로, 신작 '리얼리티 테스트 _ 그 숲은 없다'와 '리얼리티 테스트 _바다가 없다2' 두 편을 포함하여 총 8편의 영상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신동문은 2010년부터 '감각'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가상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의미를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업을 해왔다. 디지털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물건과 공간, 날씨, 시간, 위치의 조합을 통해 우리가 CG라고 통칭하던 기술과 현대 미술의 영역, 영상과 설치 작업과의 연결을 고민하며 공간의 제한을 넘어 더 많은 감상이 가득한 방법을 시도한다. 신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에서 조소과를 졸업하고 GOLDSMITHS COLLAGE에서 석사학위를 졸업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트랜스아트과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아트스페이스펄, 윌링엔딜링, 런던 디올드폴리스 스테이션, 싱가폴 아트센터, 대안공간루프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Somewhere Quiet 정성윤(00동양)

정성윤 동문의 개인전 'Somewhere Quiet'가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파이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조형적인 힌트가 더욱 축소된, 오로지 무덤덤한 색조와 물질적인 흔적으로 이루어진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의 정동문의 신작을 선보인다. 정동문은 현실에서 멀어진 거리만큼 정신은 높게 도약하며 우리의 내면은 충만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작가의 관심사인 '더 적은 것들로 더 깊이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통해 현존하는 이곳 너머 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형상으로부터 최소한의 것을 추출하여 우리의 내적 실재를 끌어오는 길을 맞이할 때 현실의 시간은 고정되고, 무한한 세계가 존재를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조명디자인 석사를, 모교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8회의 개인전을 열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 Shinhan Young Artist Festa 선정작가, 2018년 SOMA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등록작가로 선정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Flower Room 전수연(06동양)

전수연 동문의 개인전 'Flower Room'이 지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동문은 여성으로서 오늘날의 사회에 산다는 것에 대한 고찰과 고뇌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해 왔다. 아트레온 갤러리에서는 그간의 작업과 사뭇 다른 색채의 작업을 선보이게 되었는데, 블랙과 화이트로 이루어진, 꽃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다. 전동문의 연꽃은 '힘든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피어나는 능동적인 존재'로 대변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매체를 활용한 작업은 '진정한 자아를 회복시키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후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Fine Arts 석사, 서울대 대학원 미술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5년 Governors' MFA Fellowship(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미국)를 수상하였으며 4회의 개인전과 25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길에 남은 사물들 김지민(08서양)

김지민 동문의 개인전 '길에 남은 사물들'이 지난 2월 1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안계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 김동문은 정제된 조형언어로 조용하고 따뜻한 풍경을 표현한 최근 신작들을 선보인다. 주변에 놓인 것들에 대한 '한때 그러한 있음'을 남기려 하는 김동문은 현실과 일상에서 마주한 장면들을 아크릴물감으로 종이에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풍경 중에서도 아주 평이하고 촌스럽고 단순하고, 한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낡고 초라한 것에 관한 관심을 확장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판화전공을 졸업한 후 다수의 개인전과 다양한 그룹 전시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기관이 작품을 소장중이다. 순천창작예술촌, 경남예술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내일의 어제 김규원(12서양)

김규원 동문의 개인전 '내일의 어제'가 지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도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시간의 잔상'주제의 2023년 상반기 갤러리 도스 기획공모에 선정되어 열린 기획전이었다. 김동문의 작품은 여러개의 캔버스가 퍼즐처럼 연결되어 마치 여러 단위의 시간이 모이고 쌓여 우리가 인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듯, 작가 자신 또한 비정형의 단위들을 모으고 연결하며 조형에서의 전진을 시도한다. 김동문은 작품을 통해 여러 개의 단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어나갈 때, 이는 하나의 온전한 화면이 가지는 것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원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도, 구부러지고 튀어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마치 시간의 축적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념비적인 그 무엇과 닮아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17년 'The Expansion'(갤러리너트), 2023년 '내일의 어제'(갤러리 도스) 등 2회의 개인전과 9회의 단체전을 열었으며 제 8회 아시아프 프라이즈 평면부문을 수상하였다.

부드럽고 무정한 날들 장주연(12동양)

장주연 동문의 개인전 '부드럽고 무정한 날들'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도스에서 열렸다. 장동문은 불규칙하게 중첩된 선과 먹, 젯소 등 재료를 통해 불안한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도스 '시간의 잔상' 기획공모에 선정되어 열리는 기획전으로, 장동문의 작품 중 '숨' 시리즈와 '실체없는 고통' 시리즈를 통해 삶의 불확실성, 존재에 대한 물음 그리고 원인이 불분명한 심인성 고통을 통해 정신과 신체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작가 자신의 실존을 확인해온 장동문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졸업 후 동대학원 동양화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2019 검은순간(사이아트도큐먼트), 2023 부드럽고 무정한 날들(갤러리도스) 등 두 차례의 개인전과 8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본회 산하(사)에스아트플랫폼 아트디렉터로 재직중이다.

16 회원동정-전시

3월의 전시

임옥상 : 여기, 일어서는 땅

임옥상(68회화)
22.10.21 – 23.3.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rtful Partners

김차섭(59회)/김명희(68회)
22.12.7 – 23.3.10
the Anya and Andrew Shiva Gallery

강석호: 3분의 행복

강석호(91조소)
22.12.15 - 3.1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불가공약의 회화풍경

조명식(82회화)
1.1 – 3.30
SEA of SPACE GALLERY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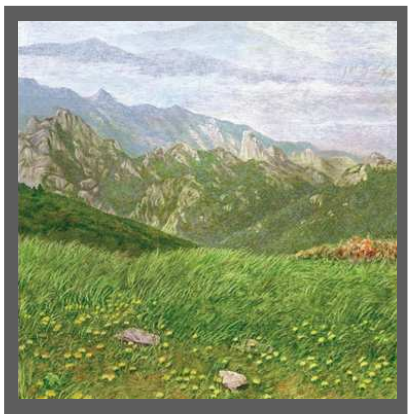
김현정(08동양)
1.10-4.8
삼례문화예술촌

LOOK

고완석(84동양)
1.15-3.15
Gallery Arte Marco

컬러 캐니언

권재나(05서양)
1.19-3.8
GALLERY ICHON



산을 그리다

이담(78회화), 김근희(78회화)
2.1-3.12
부산도서관

위안의 뜰

송지현(06동양)
2.1-3.21
보름산미술관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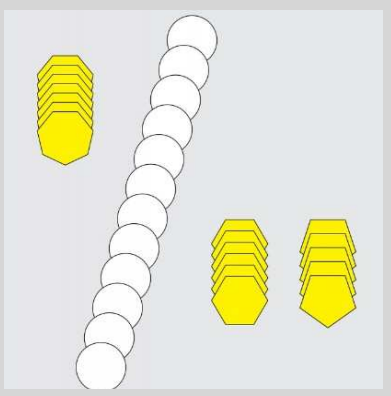
송영수(50조소)외 3인
2.3-3.26
김종영미술관 신관

Somewhere Quiet

정성윤(00동양)
2.8-3.8
파이프갤러리

바다가 없다

신기운(03졸업조소)
2.8-3.19
MUSEUM1



복선을 넘어서 II

홍승혜(78회화)
2.9-3.19
국제갤러리

길에 남은 사물들

김지민(08서양)
2.14-3.18
안계미술관

Perfect Green

김건일(92동양)
2.15-3.18
메타갤러리 라루나

오늘의 장소가 어제와 같을 수 없고

심효선(99서양)
2.23-3.7
서울시청 시민청갤러리

기억의 빈자리

이혜진(03동양)
2.28-3.22
BON GALLERY

밤과 꿈

김지수(10조소)
3.1-3.7
갤러리도스

HOMAGE to HOMO SAPIENS

곽훈(59회화)
3.2-3.31
GALLERY YEH

연결

민수정(82회화)
3.17-3.22
혜화아트센터